



[업계소식]

◆ 로지스올 인터내셔널(주) (LogisALL International Co., Ltd.)법인 설립

대한민국 6만여 거래처의 물류를 책임지는 LogisALL은 세계 제조업의 기지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역 내의 대규모 물류수요에 신속하게 발맞춰 대응하며, 對중국 SCM 물류의 긴밀한 연계 및 글로벌 Total 종합 물류솔루션을 제공하고 자로지스올 인터내셔널(주)(LAI)를 설립되었다.

로지스올 인터내셔널(주)는 파렛트 및 컨테이너 등의 물류기기 해외 임대 ULP(Unit Load Pool) 사업 뿐 아니라 보관창고업과 복합운송주선업을 기반으로 수출입 화물에 대한 포워딩, 보세운송, 보세창고, 통관, 운송 및 사후관리 등 물류 제반 업무의 통합 일괄 서비스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회사 설립과 동시에 8월 23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광양항 복합운송지원창고(연면적 2,172㎡, 사업비 19억원) 및 냉동·냉장창고(연면적 4,934㎡, 사업비 80억원) 운영사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세방과 동부건설을 제치고 로지스올 인터내셔널(주)가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어 순조로운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번 운영사 선정을 통해 로지스올 인터내셔널은 광양항 복합운송지원창고 및 냉동냉장창고를 올 9월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 지역)에 확보한 3만평을 연계하여 중국(산동성 및 청도시)과 한국을 연결하는 신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중간의 물동량 증가 및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창고 분야 아웃소싱의 수요가 급증하고, 단순 보관이 아닌 전문화된 설비관리시스템(FMS), 창고관리시스템(WMS)과 운송관리시스템(TMS)등의 업계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외부 환경 하에서 로지스올인터내셔널(주)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유비쿼터스 물류(Ubiquitous Logistics)의 구현을 통해 선진화되고 전문화된 공동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아 물류 허브의 최고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 로지스올 인터내셔널(주) 광양항 최초 냉동·냉장창고 운영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동식물품 골드체인센터 구축



종합물류기업인 LogisALL(대표 서병륜)이 광양항에 최초로 냉동·냉장창고를 개장,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은 10월 2일 오전 11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입구에 위치한 도이동 부지에서 연면적 4,934㎡의 광양항 냉동·냉장창고와 2,172㎡의 복합운송창고 개장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장한 창고들의 개발에는 각각 80억원과 19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이날 개장식은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 우윤근 의원, 김동태 전 농림부장관, 백옥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윤정현 경영관리본부장, 신명 건설본부장, 운영사인 LogisALL의 서병륜 회장을 비롯하여 관계자와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컨공단 윤정현 경영관리본부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광양항 냉동 냉장창고와 복합운송창고는 앞으로 물류원활과 항만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날 개장된 창고를 컨공단으로부터 전대 받아 운영하는 LogisALL그룹의 로지스올 인터내셔널(주)는 이미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에 3만평을 확보한 신

설법인으로, 이번에 개장하는 창고를 통해 신규 화물 창출을 위한 사업모델의 하나로 중소기업 수출입 공동물류센터 및 동식물 생산품 골드체인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식전 공연으로는 타악그룹인 '얼쭈'의 공연과 개장 기념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박상우 공단 사원 ▶지영권 여주시방해양수산청 건축주사 ▶박병태 한원종합건설 대표이사 ▶서윤석 토마건축사사무소 책임감리원 등이 창고 준공과 개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 행사안내

1993년 시작되어 14회를 맞이하고 물류 부문에서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정부 및 민간포상으로, 국내의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계를 대상으로 물류혁신을 통해 생산성향상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는 제14회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가 11월 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부산 BEXCO에서 개최된다

제14회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는 "Hand in Hand for the Global Network!" 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계에서 근무하시는 물류인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Global SCM", "Ubiquitous Logistics", "Green Logistics"을 바탕으로 한 물류정책, 전략 및 물류선진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함을 취지로 하고있다.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2006년 국·내외 물류를 총 풀산하는 아시아 최대, 최고 수준의 물류혁신컨퍼런스로 총 5개 트랙, 60개 컨터런트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주제 : New Trend, Technology & Concept of SCM,
Ubiquitous & Green Logistics
- 장소 : 부산 BEXCO , 컨벤션홀 2층
- 기간 : 2006. 11. 6(월) ~ 11. 8(수)(3일간) 09:00 ~ 16:00
- 주최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한국물류협회, 인천대학, 항만 물류사업단 ,
유통물류진흥원, 매일경제, 물류신문사, 한국해운신문사 공동주최

◆ 두산인프라코어 군산에 신공장 건설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전략 달성을 위해 건설중장비 및 산업차량 생산공장을 전북 군산에 새로이 건설한다. 두산인프라코어(대표:최승철)는 지난 10월 10일 전북도청에서 김완주 전북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소재 국가산업 단지에 건설중장비와 산업차량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2007년부터 34만평의 부지에 3천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며, 2009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공장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 일괄처리와 보조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에 공장을 추가 건설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2010년 매출액 10조원을 기록하여 ISB산업 글로벌 Top5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물량 증대와 생산성 혁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생산능력은 굴삭기 31,000대, 산업차량 55,000대 정도이나, 현재 인천공장의 최대 공급능력은 굴삭기 9,700대, 지게차 35,000대에 그치고 있어 한계상황에 다다른 상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군산에 신공장 건설을 완료하면 건설중장비는 글로벌 3대 공급기지를 구축하게 된다. 이미 증설을 완료한 중국공장과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공장을 포함하면 전체 공급능력이 약 5만대에 달해 해외 경쟁기업과 맞먹는 수준에 이른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최승철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산공장을 국내 핵심공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김완주 전북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은 “공장건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두산인프라코어 중국에 지주회사 설립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Home Market)’ 으로 육성하기 위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사업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지주회사 설립 신청에 대하여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률적인 등기절차를 완료하면 지주회사 설립은 완료된다.

중국 지주회사의 명칭은 ‘두산(중국)투자유한공사’ 이며 초기 설립 자본금은 3천만 달러이다. 지주회사 사무실은 북경에 위치하며,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8월 이미 강대룡 사장을 초대 총경리로 내정한 바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사업 역량증폭의 기반마련과 신사업 발굴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앞으로 중국관련 전사 전략 수립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건설중장비, 공작기계, 산업차량 등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한편, 법률, 세무, 회계, 홍보, 법무, IT업무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중국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주회사 내에 R&D센터를 설립해 중국의 우수 인재를 활용한 중국용 제품 연구개발과 증가하고 있는 한국 본사용 원자재 및 기자재 통합구매 기능도 점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중국 지주회사는 현지 법인 및 본사 생산 제품의 판매 및 A/S 업무도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중국 내 재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마케팅 및 영업력 강화 역할도 전개할 계획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중국시장에서의 비전실현을 위한 사업성장 및 효율화를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우수인력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산둥성 옌타이시에 굴삭기, 공작기계, 산업차량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3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40% 늘어난 5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중국 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굴삭기는 지난 2003년부터 4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20%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